

[화제의 인물]

산재예방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안정혜 보건관리자
한국산업간호협회 이사,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주)

산업재해예방에 공로가 큰 유공자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격려하고 산재예방에 관한 기술·정보를 교류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산업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제4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COEX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 재해예방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참석 하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 일정 중 제4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산업보건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산재예방유공자 포상도 진행되었는데, 올해 산재예방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는 사업장 내 산업보건센터 등 산업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주) 보건관리자 안정혜 차장에게 돌아갔다.

하나(一)밖에 없는 길에서 잠시 멈추어서(止) 살핀다는 뜻을 합(合)하여 '바르다'를 뜻하는 正(정)과,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의 군자를 이르는 말인 혜초 蕙(혜)의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만큼, 안정혜 선생님의 인상은 그리 크지 않은 체구임에도 커다란 기운의 인자함으로 바르고 곧은 길을 따라 타인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강직하고 단단한 모습이다.

안정혜 선생님은 1985년 5월부터 현재까지 GM대우자동차(주)의 부평 안전보건팀에 근무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보건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본 한국산업간호협회의 인천지부 지부장 및 본 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타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기여한 바가 매우 돋보이는데, 근로자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약 11,000여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고자 자동차생산과 관련한 작업관련 질환과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하였으며,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교육, 운동프로그램적용을 통하여 산재예방사업에 주력하여 왔다.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2005년 고혈압근로자의 치료순응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여 현재까지 회사에서의 교육, 상담 및 외부기관을 통한 주기적인 의학적 검사 등을 제공하여 대기업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개별적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한국산업간호협회 인천지부 지부장 및 본회의 부회장 직임을 수행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연구사업과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교육기관 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보건관리자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정보제공, 회원복지 증진 등 헌신적인 활동으로 한국산업간호협회의 발전과 보건관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근로자 건강보호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생님은 산업간호사가 간호사로서 도전과 개척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임상의 경력과 업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한다. 일차적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업장에서 산업간호사로서 비용편익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전문적 관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보호 측면에서는 올바른 건강의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한다. 고용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인 시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산업간호사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하여야 할 과제인 것으

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며 여러 측면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뚝순이」라 불리는 별명의 면모가 돋보이고 있었다.

간호사로서 28년의 경력 중 25년을 산업간호사로서 활동해 온 안정혜 선생님은 두 딸의 엄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활동적이며 도전적인 전문가로서의 멋진 직장 여성상을 보여준다. 회사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경영에 대한 포부로 1965년 신진자동차(주)로부터 시작된 GM대우 오토엔테크놀로지(주)에서 선생님은 사업장 내 산업보건센터 등을 운영하며 보건관리자가 진행하는 산업보건관리 영역의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일선에서 활약한 산업간호 영역의 인재이다.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산업간호사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것은 기대와 오기가 작용했던 것 같다고 하며, 주변인에게 오히려 헌신하는 자리에 있고자 한다며 겸손함을 내보이셨다. 또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느 누구보다 큰 애정으로 지지해주고 아껴주었던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하였다.

안정혜 선생님은 산업간호와 보건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 영역은 전문성과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아직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 사업장의 산업보건사업은 법적인 기준에 목표를 두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보편적이기에 각 사업장의 독창적인 보건사업이나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산업보건사업은 무형적 가치 측면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간호사

를 비롯한 보건업무 인력은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
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은 추가로 많은 산업간호사들에게 다음과 같
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산업간호사는 업무의 고통환경과 상사와의 갈등
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나의 상사라면 그 회사를 चु근하는
것이 지옥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상사가 나를 세
워주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상황
에 부딪힐 때마다 그 상사가 나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회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빨리
catch하여 나의 서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대응
할 방법을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전문성을
겸비한 침착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꼭 뒤따라야
하며 그것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안 보이는 무리
가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간호학의
이념과 사회경영구조의 이념은 너무도 다른 우리
의 현실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무기를 많이 가
진 산업간호사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나 관청의 모든 지표와 평가기준이 수치화되어
비교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전략이나 무형적인 가
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업무들이 묻혀버리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빨리빨리”는 “안전불감증”이
나 “건강불감증 또는 염려증”으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초’의 초석을 확
인하고 다지는 인력과 업무를 인정하며 뒷받침이
되어주기 바라며, 단단한 국가기반의 주역들인 산
업간호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으면 한다.

